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8.3>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818호(2018. 3. 6)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조정 이후 반등 기대 심리로 위험자산에 우호적이나 변동성 확대 경계

글로벌 자산군 선호도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01

국내 주식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 기대하나, 실적의 부정적 전망은 상승폭 제한

- 단기: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KOSPI도 우상향 전망. 다만 KOSPI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 보호무역 등에 따른 수출주 부담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주가 상승폭 제한 예상
- 중기: 대형 수출주 및 IT 업종의 실적 전망에 대해 주목할 필요. 원화 강세와 올해 반도체 실적 상승세 둔화 전망은 KOSPI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 최근 조정과 같이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 필요

02

국내 채권

글로벌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박스권 등락 전망

- 단기: 미국채 시장의 약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3월 국내 채권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
- 중기: 미국 경기회복 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최근의 채권수익률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금융시장 여건이 간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통화긴축이 좀 더 가속화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향후 6개월 간 채권시장은 통화긴축 속도에 대한 기대심리 변화에 반응하며 제한적인 금리상승세를 보일 전망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중립 의견 제시, 유럽은 경기 회복 연장세에 상대적 강세 기대

- 미국: 기준금리 인상 회수 상황 가능성 및 배당수익률과 단기 금리 역전 등은 증시에 부정적. 양호한 경기 여건과 기업 이익 전망이 증시 하단 지지 기대. 지난해와 같은 가파른 오름세가 재개 가능성은 낮지만, 양호한 펀더멘탈이 하단을 지지하는 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 중립 의견 제시
- 유럽: 경기 상승세 지속되며 성장률 컨센서스 상향 지속. 기업 이익 전망도 양호. 증시 내 금융주 비중 높은 점 고려 시 금리 상승 구간에서 상대적 강세 기대

04

신흥국 주식

이머징 위험 자산의 선호심리에 자금 유입 지속 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의

- 인도: 올해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최근 증시 조정 과정에서 Sensex 지수의 낙폭이 과도한 점도 단기적으로 강세 요인.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지속
- 중국: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과정에서 중국 분토 증시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상해종합지수 반등의 여지 큼.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꾸준한 점도 주가 하방 지지. 다만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의 필요

05

해외 채권

경기 개선에 따라 금리 상승 압박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 상존

- 단기: 미국 경기 여건 개선에 더해 세제 개편안 통과는 단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 미치며 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 판단. 수요 회복에 힘입어 물가도 서서히 동반 상승 예상
- 중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박. 다만 유럽, 일본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경우 약세폭 일부 되돌림 가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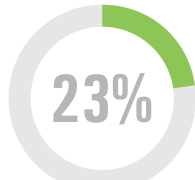
원자재

원유는 시즌적 재고 증가 시기, 금은 달러화 약세 재개 여부 주목 필요

- 유가: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4~5월까지 계절적으로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추격매수보다는 가격 조정 시 저가매수 추천
- 금: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유효한 점을 고려하면 서서히 위험자산 선호 회복 및 달러화 약세 흐름이 재개되며 금 가격에 우호적 환경 조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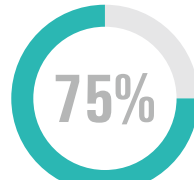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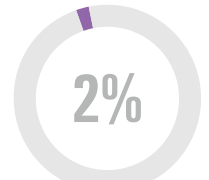
23%

국내주식형



75%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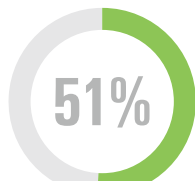


2%

유동성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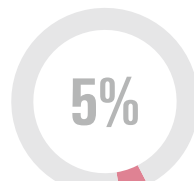
위험중립형 투자자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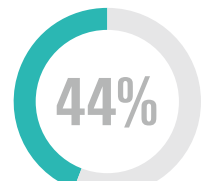
51%

국내주식형



5%

해외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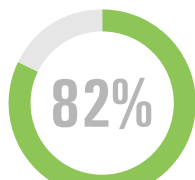


44%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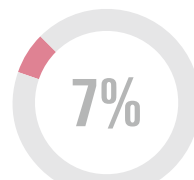
성장추구형 투자자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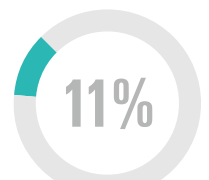
82%

국내주식형



7%

해외주식형



11%

국내채권형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KOSPI도 우상향 보일 전망. 다만 KOSPI 기업들의 실적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 보호무역 등에 따른 수출주 부담과 올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주가 상승폭을 제한할 것	대형 수출주 및 IT 업종의 실적전망에 대해 주목할 필요. 원화 강세와 올해 반도체 실적 상승세 둔화 전망은 KOSPI의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 최근 조정과 같이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채권 -	다음과 같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로 미국채 시장의 약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3월 국내 채권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 첫째, 미국은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국내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오히려 높아진 실업률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미수출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Risk가 커지고 있음. 둘째, 미국의 헤드리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를 넘어섰으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와 거리가 있음. 셋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내는 작년에 비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오히려 감소해 공급부담이 크지 않음	1) 현재와 같은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2) 최근의 채권수익률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금융시장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통화긴축이 좀 더 가속화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종합적으로 1) 미국의 금리인상 횟수가 3차례일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1차례, 2) 미국의 금리인상 횟수가 4차례가 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2차례일 것으로 예상함. 향후 6개월 간 채권시장은 통화긴축 속도에 대한 기대심리 변화에 반응하며 제한적인 금리상승세를 보일 전망
해외선진	미국 =	기준금리 인상 횟수 상향 가능성 및 배당 수익률과 단기 금리 역전 등은 증시에 부정적. 양호한 경기 여건, 기업 이익 전망이 증시 하단 지지 기대	지난해와 같은 독보적인 가파른 오름세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양호한 펀더멘탈이 하단을 지지하는 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
	유럽 +	경기 상승세 지속되며 성장을 컨센서스 상향 지속. 기업 이익 전망도 양호. 증시 내 금융주 비중 높은 점 고려 시 금리 상승 구간에서 상대적 강세 기대	유로화 움직임과 기업 실적 및 시장 영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글로벌 금리 상승 과정에서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바탕으로 선진 증시 내 유럽증시의 상대 강세 예상
	일본 +	엔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났던 만큼 수출 경기 및 기업실적 전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엔/달러 환율이 100엔 선을 하회하지 않는 한 올해 기업이익 성장세는 유지 가능할 전망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연임이 확실시된 점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 대내외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엔화 강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견조한 가운데, 브라질 경기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지속도 긍정적. 이에 브라질 주식 시장 랠리는 이어질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에 브라질 기업들은 실적 개선 보이며 주가지수 우상향 흐름 보일 전망.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나, 2018년 브라질의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주가지수 상승세 이어질 전망
	러시아	+	글로벌 유가 상승세에 에너지 비중이 높은 러시아 RTS 지수도 우호적인 흐름 보일 전망. 최근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글로벌 유가 호조에 러시아 기업 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되며 주가 우상향 보일 전망. 다만, 글로벌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능성은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
	인도	+	올해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최근 증시 조정 과정에서 Sensex지수의 낙폭이 과도한 점도 단기적으로 강세 요인.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지속	경제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정책도 긍정적.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중기적으로 주가지수 추가 상승 전망.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하에서 인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아세안	+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이후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ASEAN 증시에 대한 견조한 펀더멘털 확인. 다만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글로벌 제조업 경기 확장세 및 원자재 수요 증가, 이에 따른 수출 증가 영향으로 기업들 실적 호조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 지수 우상향 기대. 다만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대외 리스크는 주가지수 상단을 제한할 전망
해외이머징	중국	+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과정에서 중국 본토 증시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상해종합지수 반등의 여지 큼.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꾸준한 점도 추가 하방 지지. 다만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주의할 필요	중국 및 글로벌 경기 개선 지속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해종합지수의 우상향 근거. 중국 A주의 MSCI EM 편입도 수급적으로 긍정적. 다만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주의할 필요
	홍콩	+	주식시장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홍콩하는 반등 이어갈 전망. 금융 리스크 관리 및 과잉공급 축소 지속 등으로 중국 기업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점도 긍정적	물가상승 및 과잉공급 축소 지속 등으로 중국 기업들의 실적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홍콩도 우상향 보일 전망. 실적 우량주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점도 긍정적
해외채권	채권	-	미국 경기 여건 개선에 더해 세계 개편안 통과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 미치며 금리 상승 입력으로 작용 판단. 수요 회복에 힘입어 물기도 서서히 동반 상승 예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력. 다만 유럽, 일본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경우 약세폭 일부 되돌림 가능
대체투자	유가	=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4~5월까지 계절적으로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추격매수 보다는 가격 조정 시 저가매수 관점의 접근을 추천	미국 생산 확대는 부담이나 달러화 약세 환경 및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유입 등이 유가에 우호적. Inflation Surprise 시나리오 발생에 대비한 헤지 관점 접근 긍정적
	금	=	단기적으로 달러화 방향성이 관건인데,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유효한 점을 고려하면 서서히 위험자산 선호 회복 및 달러화 약세 흐름이 재개되며 금 가격에 우호적 환경 조성 가능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반등 과정에서 헤지 수요 유입 가능. Inflation Surprise 시나리오 발생에 대비한 헤지 관점 접근 긍정적

HSCEI 지수

글로벌 증시의 급등락 속에 중국 증시 또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은행 업종 위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식시장 건전성 강화 조치(신탁기금 레버리지 비율 축소 등)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에 따른 하락으로 보입니다. 중국증시 급락에도 위안화/달러는 6.3 내외의 안정적 모습을 보이며 펀더멘탈 위험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OSPI200 지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태양광, 세탁기에 이어 철강,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며 최종결정은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주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일시적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2%로 과거 대비 크게 낮아졌으며, 미 의회가 보호무역주의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 글로벌 경기 확장국면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을 생각해보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EUROSTOXX50 지수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펀더멘탈 악화보다는 그간 이례적으로 낮았던 금융시장 변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1월 FOMC 의사록을 통하여 연준위원들은 최근 미국 경제 성장세는 양호하며 경제 모멘텀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의 여건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독일 12월 수출은 상승함에 따라 연간 6.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6.5% 상승하는 등 내수 및 글로벌 교역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Fundamental)? 기업이나 경제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며 기업의 경우, 실적이나 순이익, 경제의 경우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기업이나 경제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방문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 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 후 펀드 변경 신청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